

관객이 주인공입니다

제28회
부산연극제
Busan Theater Festival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

늙은날의 초상

부제 :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

연출 이기원 작 강진순

4. 1(목)~2(금)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연출 이기원

연출 의도

극단 부산레파토리시스템의 제100회 기념축하공연이란 수식어는 일단, 2010년 제28회 부산연극제에 묻어 놓자. 작품의 비중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100회기념 축하공연이 되려면 모든 극단과 인연 있는 사람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자축의 판이어야 하고, 축하 받는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란 당위성 때문이다.

이번 연극제의 경연작 “늙은날의 초상”은 작가 강진순 씨를 닮은 예쁜 작품이다. 부제인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라-에서 볼 수 있듯이, 가는 세월을 탓하며, 버드나무 가지로 묶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가가 말하는 노년의 비애와 관계 맺기 내지 자아찾기는 등장인물들의 삶의 방식이다. 작가는 늙는다는 것을 비극으로 보지만, 죽는다는 것을 열반에 드는 것으로 보는 불가의 입장에서 보면 늙는 것은 지혜(반야)가 금강석처럼 여물어지고 빛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탐·진·치 욕심은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는 어리석음을 낳는다. 여기서 관념의 유희는 접고, 이 작품에 참여한 제작진, 출연진 모두 부담없이 행복한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작품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웃음과 가벼운 눈물 삶의 즐거움을 찾아 가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줄거리

이 작품에는 우리 주위의 다양한 노인들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

자식들 뒤치다꺼리로 삶의 낙을 삼는 순덕과 그런 순덕을 사랑하는 창수, 고물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거북과 재취로 살다가 남편을 잃은 금봉이 그들이다. 이들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

순덕은 큰 딸 정희와 같이 살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일방적으로 손자들을 맡기는 작은 딸로 인해 자기시간을 갖지 못한다.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쏟지만 그것으로 텅 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창수의 오랜 구애에 결국 순덕은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만 딸들은 엄마의 사랑을 용납하기 힘들다.

창수는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혼자 외롭게 산다. 그러나 순덕을 알게 된 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순덕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고 결국 순덕을 마음을 얻어 되나 아들의 허락을 받을 길은 없다.

거북은 고물을 팔아 근근이 살아간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돈을 딸은 아무 말 없이 빼돌린다. 게다가 구청에서 나오는 생활 보조금까지 딸이 중간에서 가로채자 거북은 경악한다.

금봉은 재취였지만 15년 가까이 살면서 의붓자식들을 거두고 공부시켰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자식들은 유산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 갈 곳이 없어진 금봉은 장례식이 끝난 후 거북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들 네 노인의 관계 맺기는 스스로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순덕이 집을 박차고 나오는 것도, 창수가 과거의 아픔을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도, 거북이 끊임없이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도, 금봉이 자식들에게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도 모두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게 많아진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살아있는 이유를 만드는 일이다.

Cast



순덕 **변지연**



금봉 **우명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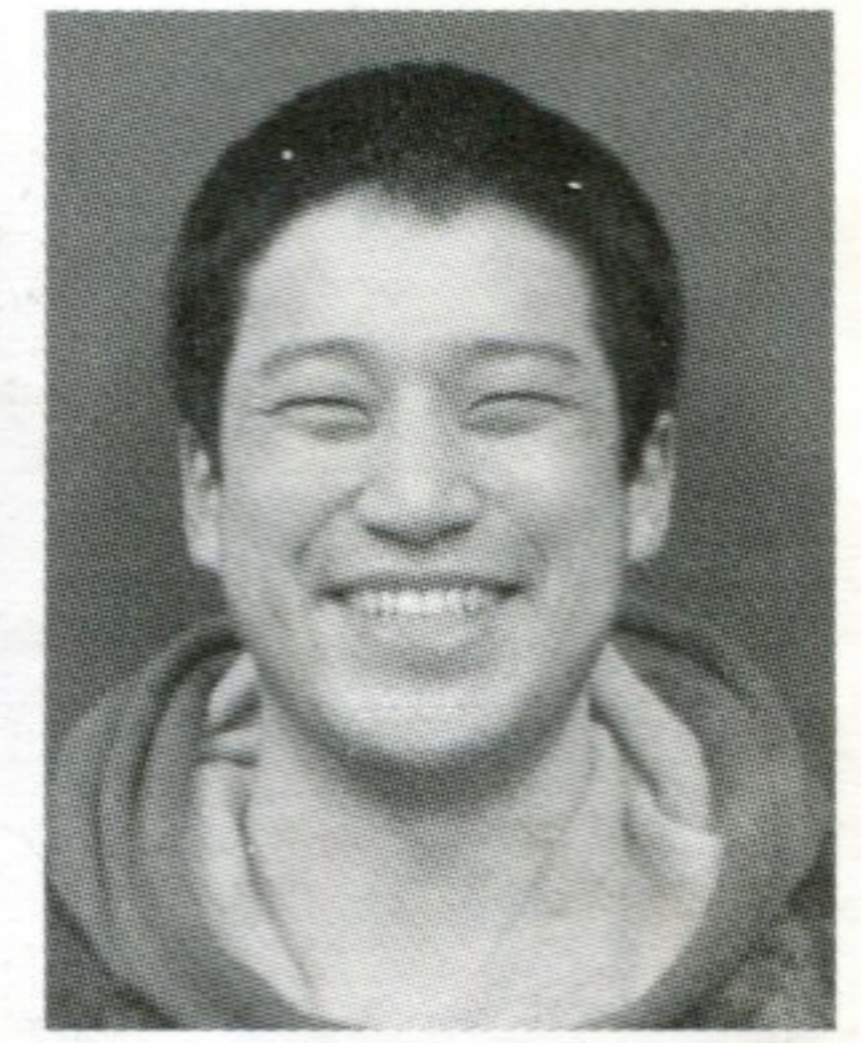
거북 **김은미**



창수 **유상훈**



여자12345 **길수경**



남자12345 **김상호**

Staff



제작 **장세중**



제작 **김동석**



조연출 **박강길**



기획 **이은경**



기획 **조수현**



음악 **이세호**



분장 **박은주**



무대디자인 **황경호**



의상 **민자윤**



무대감독 **조용황**



조명디자인 **김철현**



음향 **이영희**



진행 **김동범**

제작 **박기찬**